

# 항공기가 안전하게 취항할 수 있도록 울릉공항을 건설 중입니다

- 80석급 항공기 취항이 가능토록 설계 변경 추진 -
- 공사비·공기에 미치는 영향 적어 ...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-

< 보도 내용 (동아일보, 9.5) >

◆ 한국에 없는 소형기 맞춰 설계한 울릉공항, 또 재설계 추진

- 울릉공항 설계 항공기 상향 조정(50→80인승)으로 설계변경 추진 중, 공사비 수백억까지 추가 투입해야...

- 당초 울릉공항은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 기준인 50석급 항공기 (ATR-42, Q300)에 맞춰 건설 중이었으나, **국내외 항공기 수급 상황, 소형 항공사업자 등록기준 개선 방향(50석→확대 검토 중)** 등을 고려해 80석급 (ATR-72 등) 항공기가 안전하게 취항하도록 **설계변경을 추진 중입니다.**
  - 이 경우 공항등급을 상향조정(2C→3C)하고 활주로 양쪽의 안전구역인 착륙대의 소폭 확장(140→150m) 등 시설을 보완해야 하나, 추가 매립 공사 없이 기존 설계에 반영된 부지 내에서 공사가 가능해 **큰 폭의 공사비 증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**
  - 아울러, 현재 부지 매립공사가 진행 중이고 설계변경을 반영한 활주로, 착륙대 등 시설 배치는 이후 단계에서 진행되는 만큼 **공사 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전망입니다.**
-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에 항공기가 안전하게 취항하여 울릉도 방문객과 주민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**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** 나가겠습니다.

담당부서	공항정책관	책임자	팀 장	서정관 (044-201-4137)
	공항건설팀	담당자	사무관	유현서 (044-201-4141)

**참고**

**공항시설 설치기준 및 이에 따른 1,200m급 활주로 제원**

□ 「공항·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」 상 육상비행장 분류기준

분류요소1		분류요소2	
분류번호	항공기 최소이륙거리	분류문자	항공기 주 날개의 폭
1	800m 미만	A	15m 미만
2	800m 이상 1200m 미만	B	15m 이상 24m 미만
3	1200m 이상 1800m 미만	C	24m 이상 36m 미만
4	1800m 이상	D	36m 이상 52m 미만
		E	52m 이상 65m 미만
		F	65m 이상 80m 미만

□ 2C 계기활주로 : 기존 설계안



□ 3C 비계기활주로 : 설계변경 추진안, 기존 착륙대 폭 +10m



□ 3C 계기활주로 : 현지 여건 상 추진 곤란, 기존 착륙대 폭 +140m

